

타락한 솔로몬과 솔로몬의 결론

-복음으로 여는 전도서-

전도서 1:1-2, 디모데후서 4:1-2

정 윤 돈 목사님

* **전1:1-2**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 **딤후4:1-2**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준커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나 교단적, 교회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오히려 새로운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학교와 교육의 과정을 마치고 새롭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붙잡아 주셨사오니 평생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전도자로 여는 현장을 가든지 일곱 램뉼트처럼 현장을 이기고 빛을 발하는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결단코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 특별히 졸업생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성탄음악회에 많은 분을 초청했다. 보통 15~20명 정도 오실 줄 알고 롤케이크 선물을 30개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말을 많이 해서 60개나 주문이 되었다. 너무 많다 싶어 줄였는데, 당일 오신 분만 38명 정도 되고 봉사자들까지 합치니 상황을 이루었다. 팀들이 헌신해 준 덕분에 아주 수준 높고 은혜로운 음악회가 되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매주 음악회를 다니시며 문화를 누리시던데, 하나님은 우리가 음악, 미술, 예술 등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을 초청하여 복음화하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제가 운동하면서 만난 분의 가족을 이번엔 초대했다. 세 명이 와서 롤케이크를 하나씩 다 받아가서 배 터지게 먹었을 것 같다. 그 아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1년 내내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라고 고백했다. 반면 부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신다. 문제는 딸인데, 이 친구가 운동선수가 되어야 하는데 연약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번엔 그 딸을 예배에 참석시켰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다음에는 우리 연합예배 때 딸을 데려와 스키를 타는 멋진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후원금도 전달하며 격려하자고 했다. 이런 한 분 만나는 서밋운동이지만 모든 분야에 서밋들을 초청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자. 이들의 목표는 금메달이다. 우리 교회에서 작게라도 후원했는데 금메달을 따면 복음을 전하자. 내가 부족하면 함께 모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말씀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한다. “나는 안 돼, 어려워,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전도 시도조차 못하고 1년, 2년을 그냥 보내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보라.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할 시간이 없다. 자기가 가야 할 절대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불만하고 남의 일 간섭하는 것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저도 운동을 해보니 하루가 짧아지고 인생이 길어진다는 것을 느낀다. 시간이 나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하고 오자’는 마음으로 틈을 내어 운동하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새로운 현장에 들어가 원장님과 대화하며 전도의 문을 엿다. 이번엔 감사하게도 한 성도님이 램뉼트 현금 500만 원, RUTC현금을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어학연수 비용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1,000만 원을 채워주셨다. 덕분에 송구영신예배 때 선발하여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장을 보니 어학연수와 영적 훈련을 같이 해야 한다.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이 계시고, 홍콩의 새생명교회 같은 곳은 인재와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은 학교, 대학시스템까지 다 구축해 놓으셨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한두 달 살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단,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위험이 있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 동의 도장 받고 “순교자의 각오로 가겠습니다”하는 아이들만 보내려 한다. 아프리카는 유럽과 연결되어 있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통로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이 마음을 품고 또 송구영신예배 때는 여러분이 올해 응답 받은 것,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있다. 그리고 2026년도 또 평생 기도제목을 적어 보자.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제목 다 적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지금은 거의 안 적는다. “그냥 뭐냐면 알아서 하십시오”그런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응답이고, 모든 생각이 응답이고 그렇다. 여러분이 응답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최고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졸업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전도서 메시지를 주셨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공부도 헛된가? 맞다.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

고 하는 공부는 헛되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피해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한 엘리트들이었다. 복음 없는 성공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러나 그 전문성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면 천만 배의 축복이 된다. 대학 4년이 인생 40년을 좌우한다. 친구를 만나고 연애하는 것도 좋지만, 남는 것은 딱 두 가지다. ‘공부’와 ‘신앙생활’이다. 20대의 1년은 40~50대의 10년과 맞먹는다. 이때 어학, 자격증, 미래준비를 해야 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고, 교회 봉사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교회를 배워야 한다. 이때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로가 되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 졸업생들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후대들도 보면 대학교 다닐 때, 사소한 건데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엔 졸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성도들은 다 잘되었다. 목사님은 많은 경험과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영적인 것과 미래나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각 주는 조언이 다른 말이다. 그 조언을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 따라 강단의 목사님의 조언과 강단메시지와 또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면 그런 사람 치고 절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응답을 안 받는 사람이 없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바람, 입김, 안개, 공허함을 의미한다. 무의미하다기보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덧없음을 뜻한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 예전에 탄자니아 선교지에 갔을 때 초등학교 1~2학년쯤 되는 꼬마 여자아이를 만났다. 수백 명의 현지인 사이에서 하얀 피부의 한국 아이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알코올중독으로 엄마를 폭행했고, 엄마는 도망갔으며,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선교사님이 맡아 키우고 있었다. 너무 불쌍한 상황이지만, 그 아이가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주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가’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유 없이 뭐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느냐’,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방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나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한 것이다. 도저히 어떤 돈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축복과 가치와 행복과 미래를 지금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고 축복이고 세계복음화인줄 믿으시기 바란다. 사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식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 지식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성공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 로마까지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철학자는 “인생의 공허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출발점이다”라고 했다. 인생의 허무를 느꼈다면 최고의 축복의 문 앞에 선 것이다. 어떤 성도가 “좋은 남편, 자녀, 집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공허하다”고 하시더라. 제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의미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앞에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참된 답과 결론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를 살리겠다. ‘우리 교회’만 살리겠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교단, 이게 애국이 아니라 잘못하면 국수주의에 빠진다. 이 상하게 빠진다. 세계를 살리기 위한 우리나라, 민족, 이렇게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에 기록한 책이다.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는 아가서를, 그리고 중년에 때는 잠언을 썼고 그리고 타락 후, 말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하였다.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 그의 영적 상태는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줄 알았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문제가 없을 때의 고백이었다. 우리도 평소엔 ‘오직 예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남 탓하지 않는가? 그건 진짜 ‘오직’이 아니다. 완전복음이 아니다. 잠언을 기록할 때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왕이니 교만으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 질병,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을 만들어야 한다.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자신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산전수 전 다 겪고 타락도 해보고 나니,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전도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겸손함과 은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거듭나질 때 흑암은 꺾이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예전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복지시설에 봉사하러 간 적이 있다. 차 10대와 엄청난 후원금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뒤에 앉은 권사님이 앞사람을 보며 “저 사탄, 마귀 봐라”하고 비난하더라. 봉사하러 와서 “사탄아, 물러가라”한다고

물러가는가? 아니다.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감싸줄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가정,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회개하고 순해보고 죽어질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다. 전도서의 기록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란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된 행복자, 진정한 성공자이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될 수 있다.

1. 솔로몬 왕이 누렸던 모든 영화와 타락

(1) 전도서 2장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라고 했다. 요즘 TV를 보면 ‘개그콘서트’, ‘웃찾사’같은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남을 웃기기 위해 만드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장로님은 집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절대 못 보게 했다고 한다. “나는 먹고살기 위해, 남을 웃기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싫다”는 이유였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당대 최고의 광대들과 개그쇼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미친 짓이고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고려대를 나온 똑똑한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안타까운 자살소식도 있었다. 남을 웃기는 화려한 직업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와 공허함이 있기에 복을 얻지 못하는 결국 우울증과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진짜 우리의, 나의 잘못이다.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린다. 얼마든지 길이 있다. 길은 뭐냐? 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길이 막혔다고 한다.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란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다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란다. 길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란다. 이유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 능력과 아무 관계없다. 명문대학, 뭐 좋은 것, 학벌 다 소용 없다. 내가 정말로 날마다 도전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내 안에 타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고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참된 왕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길을 열어 주시는 선지자이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문제없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 내 주인이다. 이 주인이 계시는데 누가 이기겠는가?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누가 막겠는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2) 전도서 2장 3절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했다. 프랑스 부르고뉴의 어떤 와인인은 한 병에 7억 원이나 한다고 한다. 당대 최고 부자였던 솔로몬은 전 세계의 종다는 술은 다 마셔보며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 끝도 헛된 것이었다. 세상 것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다는 고백이 복음과 전도와 양육과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아니면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할 수가 없다. 내가 못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3) 솔로몬은 인생의 지혜와 정의를 찾으려 노력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별로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정의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선으로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선이 되기 십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정의와 선으로는 영적인 문제, 원죄, 사탄, 지옥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전도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과 여러 동산을 만들고 연못을 파려고 했다. 일본에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을 본 적이 있다. 너무 예뻐서, 저절로 관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나는 보는 것만 좋지 만드는 건 싫다. 성격유형검사를 해보면 ‘자연친화력 지수’가 높은 분들이 있다. 우리 사모님도 나무나 꽃을 보면 대화를 한다. 나무가 “목 마르니까 물 줘”라고 말하는 게 느껴진다고 한다. 반면 나는 식물을 다 죽이는 스타일이라 여전도회에 내 방에는 절대 화분을 놓지 말라고 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좋아하지만 식물은 잘 안 맞는다. 어떤 분들은 수석이나 분재를 몇 억 원씩 들여 정성껏 키운다. 나뭇가지 하나만 부러져도 가치가 떨어지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나. 솔로몬도 그런 정원과 연못을 꾸미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진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알게 된다. 천국에는 이 땅의 어떤 정원보다 천만 배 더 아름다운 정원이 예비되어 있다.

(5) 전도서 2장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낳기도 했다”고 나온다. 과거 미국역사에도 ‘노예 번식(Breeding)’이라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건강한 노예를 강제로 교배시켜 노동력을 불리는 반인륜적인 행위였다.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 노예의 숫자가 곧 부(富)였기 때문이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지금 보면 얼마나 악하고 헛된 일인가.

(6) 전도서 2장 8절을 보면 은금과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다. 방패와 식기까지 다 금으로 만들 정도였고, 부인과 첩이 천 명이나 되었다.

(7) 전도서 2장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

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했다. 해볼 건 다 해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2장 11절에 내린 결론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였다. 그 후로 전도서를 쓰게 된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다가 결국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열왕기상 11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솔로몬은 애굽(이집트) 바로의 딸을 비롯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여인들이 결국 왕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다랏’과 암몬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다. 밀곰(몰록) 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생명을 사랑해야 할 왕이 자식을 불태우는 악한 종교를 허용한 것이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모스는 전쟁과 살육, 폭력을 정당화하는 신이다. 이기기만 하면 선(善)이고, 복수와 승리가 목적인 잔인한 신이다. 솔로몬이 이런 악한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고 징계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게 된다.

2. 솔로몬의 결론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다. 비록 그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참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1)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무려 37번이나 “헛되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생의 결론을 말하였다. 대표적인 구절인 1장 2절에서는 한 절에만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 “솔로몬도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고 즐기다가 늙어서 전도서 썼으니, 나도 젊을 땐 세상 실컷 즐기고 늙어서 하나님 잘 믿겠다” 참 훌륭한 배짱이다. 하지만 그것은 솔로몬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 솔로몬이 천국에 간다면, 어쩌면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그 모든 부귀영화가 헛된 것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솔로몬의 타락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천만 배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2) 둘째, ‘전도자’로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답이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을 ‘전도자(The Preacher)’라고 6번이나 칭하였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왕(King)’으로 기억되기보다, 영적 서밋인 ‘전도자’로 남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공이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세계복음화 하겠다”, “237개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자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지구본을 돌리면서 237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직접 다 못 가더라도 기도를 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길을 여신다.

(3) 셋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나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다. 어찌 세세문답을 하신 장로님께서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를 믿을 걸 그랬습니다”라고 아쉬워하셨다. 늦게 믿어도 귀하지만, 청년의 때에 복음을 깨닫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4) 넷째, 심판이 있음을 알고 행동하라.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경고한다. 이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책임이 따른다”는 엄중한 경고다. 그래서 여러분은 청년 때 영육 간에 랍넛 시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남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진짜 성공자는 그런 시간을 안 보낸다. 딱 목표표를 가지고 나를 준비할 길 바란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한다.

(5) 다섯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최종 결론과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다. 우리 다함께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보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거듭난 솔로몬처럼, 정확한 인생의 결론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의 고백과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다가오는 2026년에는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가며 30배, 60배, 100배의 영육 간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졸업하여 새로운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후대들도 최선을 다하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영적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